

나무 숲리

박재천 지음

196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올해로 등단 30년을 맞는 중견시인의 아홉번째 신작 시집. 동양적 사유의 전통을 현대시로 계승 발전시켰다고 평가되어온 시인의 이번 시집엔 현실의 삶과 시인의 지적 모험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도깨비가 그리운 날〉 〈이름나무〉 〈아우스딩을 위해〉 등의 작품을 4부로 나눠 실었다. (764-5057)

문학아카데미 / B6변형 / 126면 / 3500원

16인 신작시집

고정애 외 지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걸쳐 시단에 등단한 이래 개성적인 시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류시인 16인의 신작시 모음.

고정애·곽정례·김정아·노혜봉·류숙·박수진·박승미·송정란·이기애·이나명·이영신·이인원·이창화·전영주·지인·하영 등 16인의 작품을 모았다.

문학아카데미 / B6변형 / 120면 / 3500원

참 이상한 상형문자

이승욱 지음

일상적이고 소박한 어휘들을 사용해 낯다른 비유의 명징성으로 개성적인 시적 화법을 구사해온 시인의 두번째 시집. 〈지겨운 평화〉 〈두쪽의 붉은 입술〉 〈물방개야, 물방개야〉 등의 작품을 4부로 나눠 실었다. 문학평론가 이남호 씨는 “이승욱 시인의 시에

는 우리 시대가 폐기처분한 낭만적 순수가 살아남아 있다”고 평하고 있다. (515-2000) 민음사 / B6변형 / 124면 / 3500원

헤인화랑에 내걸린 우리들의 초상

방성두 외 지음

1991년 《월간 동양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의 첫 시집. 그의 시세계는 신화적 상상력이 빚어낸 상징적 이미지들로 가득차 있는데 ‘헤인화랑’은 바로 시인이 규정한 신화적 상상의 영역이다. (322-2011)

창하 / B6변형 / 156면 / 3000원

새벽달로 어둠을 쓸며

박승범 지음

‘오늘의 문학 시인선’ 시리즈 14번째 시집. 그의 시는 생활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감지되는 서정과 시인이 인지하는 서정적 대상물이 그러하다. 연작시로 되어 있는 〈새벽 배달길〉은 실제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형상화, 진솔함이 묻어난다. (042-624-2980)

오늘의문학사 / B6변형 / 136면 / 3000원

꿈에 오신 그대

이동순 지음

《개밥풀》 《물의 노래》 《지금 그리운 사람은》 등 여섯 권의 시집을 샅샅이 바 있는 시인의 연애시집. 그러나 단순한 연애시이기 이전에 때묻지 않은 애정으로 사랑마저

화제의 시집

독특한 서정의 아름다움

‘창비시선’ 4권



《바다의 눈》은 단정한 리듬과 투명한 서정으로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한 김명수의 다섯번째 시집이다. 5부로 구성된 이 시집은 4.5년간 발표한 55편의 시편들이 실려 있는데 공동체의식과 인간성 상실문제를 다

룬다.

우리 산천과 사람들의 꿈과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온 과제구 시인의 다섯번째 시집 《참 맑은 물살》은 시인의 오랜 기행 속에서 길어올린 시편들을 모았다. 풍자와 익살로 슬픔과 분노에 대해 노래한 시편들과 조선 소리, 사람, 정서를 찾아다니며 얻은 시편들이 있다.

박남준 시인의 세번째 시집 《그 숲에 새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다》에는 슬픔을 바탕으로 한결 날카롭고 깊어진 자기성찰을 느끼게 하는 60편의 시가 실려 있다.

절제된 감정과 언어에 대한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정종목 시인은 첫 시집 이후 5년 만에 《복숭아뼈에 대한 회상》을 펴냈다. 시인은 좌절과 절망의 어두운 이미지들을 투명하고 명료한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창작과비평사/B6변형/각 124면 내외/각 3500원



부박해지는 세대에 대한 저항으로 읽힌다. 〈그대가 별이라며〉 〈그대 생각〉 〈눈부신 얼굴〉 등 정서적 감동이 넘치는 시작품들이 선보인다. (765-6510)

문학동네 / B6변형 / 110면 / 3500원

58년 개띠

서정홍 지음

1990년 ‘마창노련문학상’과 1992년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의 시집. 생산현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이 깊은 통찰력으로 묘사돼 감동을 준다. 58년 개띠에 태어난 세대의 자서전이다. (323-2653)

보리 / B6변형 / 160면 / 3500원

꿈을 불어로 끈 날은 슬프다

염명순 지음

198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아침노래〉로 등단한 시인의 처녀시집. 〈아침노래〉 〈비누방울〉 〈낮선 곳에서〉 〈저물녘〉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시인은 자신의 삶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입회’라 규정짓는데 삶의 고단함을 관통하는 심미적 자의식이 돋보인다. (765-6510)

문학동네 / B6변형 / 112면 / 3500원

로트레이몽성으로 가는 야행기

이세훈 지음

현재 국립국악원 공무원으로 ‘오늘의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시인의 첫 시집. 불교

화제의 시집

자연을 노래한 시모음

‘문학과지성 시인선’ 7권



1992년 《문학과사회》로 등단한 양진건 시인의 첫 시집 《대담한 정신》은 자연을 노래한 시모음. 역시 《문학과사회》로 등단한 심재상 시인의 첫 시집 《누군가 그의 잠을 빌려》는 들어갔던 문을 찾아 다시 나오려는

열망의 기록이다.

사물과 풍경을 사랑해온 시인 김영태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에서는 무용, 무대장면, 여행, 미술, 일상사들로 이루어진 그의 삶들이 시 속에서 독특한 풍경을 이룬다. 홍영철 시인의 세번째 시집 《가슴속을 누가 걸어가고 있다》를 보면 시인의 생애에 대한 사랑과 간절한 욕구가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시인이자 전문연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유 시인은 세번째 시집 《홀로 서서 별들을 바라본다》에서 ‘표절’에 관한 몇 가지 의미를 짚어본다.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 강윤후의 첫 시집 《다시 쓸쓸한 날에》는 ‘더이상 멸망과 폐허는 없다’는 시인의 우회적 전언이다. 시인 유하는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에서 명멸하는 한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다.

문학과지성사/B6변형/각 120면 내외/각 3500원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수행을 실천한 흔적이 자연묘사와 심리묘사를 통해 드러나며 역설에 의한 선적(禪的) 이미지를 형상화한 점이 특징. (042-624-2980)
오늘의문학사/B6변형/120면/3000원

현장답사

세무스 히니 지음/정성호 옮김
분쟁으로 분열된 아일랜드의 고통과 열정을 새롭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95년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의 14번째 시집. 토속적인 향토색과 현대적 사실주의를 혼합하고 문학적 형식요소를 절제해 자연스럽고 독특한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713-6363)
백양출판사/A5신/146면/4000원

그 섬

세이머스 히니 지음/김정환 옮김
95년 노벨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1984년 상재한 《Station Island》를 완역했다. 최근 시인의 시세계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으며 일상을 통해 더 단순해지고 깊어진 경지를 열어보인다. 일상언어의 미세한 무늬와 깊이를 포착해내는 솜씨가 돋보인다. (701-7861)
한겨레/B6변형/190면/3500원

풀무바람 속에서

김정규 지음
1981년 《포항문학》과 1985년 《시인》지를 통해 등단한 시인의 첫 시집. 포항제철에

화제의 시집

욕망의 흐름을 노래

‘세계사시인선’ 6권



문예중앙신인상으로 등단한 노태맹의 《유리에 가서 불탄다》, 《문학정신》으로 데뷔한 박서원의 《난간 위의 고양이》, 안정옥의 《나는 독을 가졌네》, 김언희의 《트렁크》 작가세계신인상으로 등단한 이수명의 《새

로운 오독이 거리를 메웠다》와 《현대시사상》으로 등단한 박찬일의 《화장실에서 욕하는 자들》 등 6권 시집이 출간됐다.
노태맹 시인의 ‘유리’는 부재와 존재의 이율배반이며 잡을 수 없는 허구로 하나의 화두다. 박서원 시인의 시는 자아, 삶 또는 운명이라는 무정형의 해체이며, 헤매지만 헤멜 수 없음은 안정옥 시인의 시적 실천 조건이다. 김언희 시인은 ‘욕망하는 기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기계와 인간의 동일시, 욕망의 흐름과 차단을 노래한다. 이수명 시인의 특징은 오류 없는 정확한 문장들, 치밀하게 결합되는 부가어들, 구체적인 사물모티프로 여과되는 관념들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박찬일 시인의 시는 우리의 안락함을 불안하게 만들며 이 세계를 뒤돌아보게 만든다.
세계사/B6변형/각 100면 내외/각 4000원

근무하며 지방문학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시인은 문학이란 사람살이의 한 가지 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63편의 시가 4부로 나뉘어 실려 있다. (3272-8967)
책만드는집/B6변형/124면/3500원

별이라고 했니 운명이라고 했니

김유선 시집
1983년 정한모 시인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등단한 시인의 첫 시집. 이 시집에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로서 존재론적인 탐구가 지속된다.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갈망과 그리움, 자유지향성은 광물성의 삶에 지친 현대인에게 평화와 안식을 던져준다. (736-8320)
시와시학사/B6변형/110면/3500원

눈물이 강물보다 깊어 건너지 못하고

조두섭 지음
투명하고 간결한 언어로 서정의 시세계를 지켜온 시인의 첫 시집. 78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와 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자연친화에 토대를 두고 존재의 본질과 형이상학적 의미의 뿌리를 파헤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736-8320)
시와시학사/B6변형/128면/3500원

우리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임성규 지음
지하철노조 민주화운동의 일꾼으로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된 시인의 사랑과 노여움의 기록이다. 시인의 시는 이념의 퇴조에 따른 패배주의에 대한 반성적 자세와 맥을 같이 하며 인간에 대한 신뢰와 건강한 사회실현을 위해 버릴 수 없는 희망의 기록이다. (355-1115)
책이있는풍경/B6변형/134면/3500원

백학 III

라슬 감자토비치 감자토프 지음/한정수 옮김
러시아의 정치가이자 국민시인인 감자토프의 서정성, 깊은 시집이 세번째로 완간되었다. 여인에 대한 사랑, 벗과 이웃에 대한 사랑, 고향인 다게스탄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단순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다뤄지고 있다. (846-6952)
가리온/B6변형/124면/3000원

’80신춘문예 당선시집

편집위원 위음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들을 심사평과 함께 연도별로 묶었다.

83년의 박정숙·고운기·김경미, 84년의 황인숙·안도현·이승하, 85년의 기형도·전연옥, 86년의 최승권·박주택, 87년의 이상희, 88년의 권대웅, 89년의 나희덕 등 42인의 당선작을 실었다. 1955년 이후 1982년까지의 당선 작품은 《전후신춘문예 당선시집》(실천문학사)으로 출간된 바 있다. (322-2161)
실천문학사/B6변형/174면/4000원

유년일기

강병철 지음
소설집 《비늘눈》을 발표한 바 있는 시인의 첫 시집. 그가 바라본 세상을 순박한 서정과 토속적인 언어로 형상화했다. 시인 정영상은 “강병철은 따뜻하며 그 따뜻함의 원천은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는 진흙 같은 솔직함에 있다”고 평가했다. (364-8666)
푸른숲/B6변형/140면/3500원

지금 내 가슴을 쏘아다오

박윤규 지음
삶과 존재의 의미를 투명한 서정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형상화해낸 시인의 첫 시집. 199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시 〈슬픈 바퀴〉로 등단한 후 연작 장시 〈꽃과 계복〉, 장편소설 《물속나라》, 장편동화 《초록명기와 눈사람 투비투비》를 발표한 바 있다. (364-8666)
푸른숲/B6변형/130면/3500원

그리운 애나벨리

임영란 지음
1989년 〈불이 되기 위한 기도〉 등으로 심사신인상을 수상한 시인의 첫 시집. 시인은 ‘차오르는 그리움’에서 순정한 인간의 한 이상형을 꿈꾸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선학(동국대 교수)씨는 그리움의 정서가 ‘비원(悲願)’이라는 고뇌와 용해되면서 하나의 이성으로 승화되기를 당부한다. (3272-8967)
책만드는집/B6변형/136면/3500원